

“No.1 금융플랫폼 도약 위해 파부침주… ESG경영 내재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 앉힌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

윤종규 KB금융 회장

경영전략 키워드 ‘리뉴 2021’
“대변화 시대, 오히려 차별화 호기”
계열사별 역할 재정립…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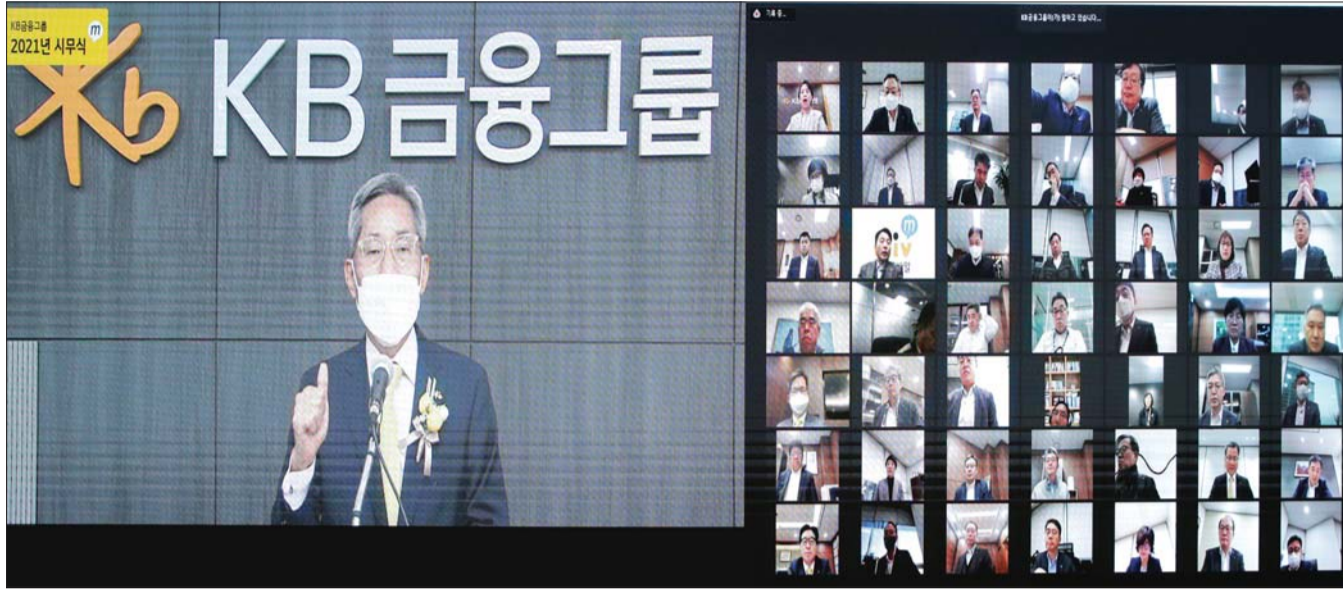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2021년을 넘버원(No.1) 금융플랫폼 기업 원년으로 선언했다.

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대변화의 시대에 맞춰 미래 금융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한해”라며 “금융플랫폼 혁신을 통해 고객 접점을 더 확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넘버원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빅 블러’ 시대… 발빠른 대응이 성패 좌우

금융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이 것이 바뀌었고, 경제상황은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윤 회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 속에 빅테크의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로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가 도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4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1년 KB금융그룹 사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KB금융

래 새로운 위협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엔택트의 일상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한국 금융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화의 시대지만 윤 회장은 오히려 차별화의 호기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누가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KB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KB가 미래금융을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올해의 사자성은 ‘파부침주(破釜沈舟)’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 앉힌다는 말이다. 기존의 익숙한 것이나 관습과 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필요하다면 기득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의지다.

◆ 경영전략 키워드 ‘리뉴(R.E.N.E.W) 2021’

올해 그룹의 경영전략 방향은 ‘리뉴(R.E.N.E.W)’다. ▲핵심경쟁력 강화(Reinforce the Core) ▲글로벌 & 신성장동력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금융플랫폼 혁신(No.1 Platform) ▲ESG 등 지속가능경영 선도(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등 5가지 방향을 말한다.

윤 회장은 먼저 “은행은 확고한 1위, 주요 계열사들은 업권 내 톱 티어(Top-tier)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계 I 열사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 지위를 제고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품판매에서 종합자산관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빅테크 기반의 개인화 고객관리 체계를 구축해 초개인화 마케팅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사업은 동남아 시장과 선진시장의 두 트랙(Two-Track)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영역의 이익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 회장은 “스타뱅킹과 리브메이트 등 그룹의 대표 금융 앱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각 플랫폼의 역할에 맞는 특화된 종합금융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고객, 상품, 채널의 혁신을 통해 빅테크사와는 차별화된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확립을 위해서는 ESG 경영의 확산과 내재화를 추진한다.

그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며 “RE100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친환경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확대해 녹색금융을 선도하는 등 금융 산업 내 그린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oul.co.kr

신한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디지털자산 시장 선제 대응

신한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진출을 위해 관련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이번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기업인 페어스퀘어랩 등이 설립한 KDAC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연구개발(R&D) 및 공동사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확대될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

해 커스터디, 디파이(DeFi)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에 사업적 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또 투자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KDAC와 협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7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능력과 커스터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특금법 시행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적인 고객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디지털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신한이 운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지난해 구축한 DT 구동 체계를 바탕으로 신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골드 안심서비스, 닥터론 자격검증,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검증 사업참여,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발굴 등 사업적 기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우리銀,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비정형 고객행동정보, AI로 분석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고객행동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행동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활용했던 고객 인적정보와 거래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상담내역(음성), 입출금내역(텍스트),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내역(로그) 등을 활용한다. 이러한 비정형 고객행동정보를 AI로 분석해 개인별 최적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고객은 영업점 방문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금융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음성, 텍스트, 로그 등 비

정형 데이터를 정비하고,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 결합해 고객행동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AI 마케팅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AI 마케팅 모델을 마케팅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 집계, 모델 성능평가, 모델 재훈련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채널에 반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고객행동정보를 통해 금융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라며 “이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행동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새해엔 주택청약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

하나은행, 신규 가입고객 이벤트

하나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새해엔 별 쏘아지는 청약 선물 충전~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신축년 새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및 소(牛) 골드바(3.75g) 추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우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기

이벤트는 하나은행 스마트폰 앱 ‘하나원큐’를 통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2만원 이상 신규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건 충족 후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의 ‘가입완료 스티커쿠폰받기’를 클릭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을 2만원 이상 신규가입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개인은 자동 응모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운세서비스’ 선포

NH농협은행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프리미엄 ‘운세서비스’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운세서비스는 올원뱅크 앱의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총 8가지(오늘의 운세, 이번주 행운번호, 토정비결, 직업운, 소원카드, 타로봇, 타로카드 재물운, 타로카드 운세) 다양한 형태의 운세를 무료로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M과 X가 만나 강력해진 혜택 ‘MX 부스트’

현대카드, 모든 가맹점서 혜택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M’과 ‘현대카드 X’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현대카드 MX 부스트(BOOST)를 7일 공개했다.

현대카드 M과 X는 현대카드의 대표 상품 시리즈로,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M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새롭게 공개한 현대카드 MX 부스트는 기존 상품보다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탑재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적립 및 할인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간편결제와 해



현대카드 MX BOOST



현대카드 MX BOOST 시리즈 12종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현대카드

외 가맹점 특별 혜택을 신설했다. 특히 모든 가맹점에서 쓰면 쓸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를 많이 사용한 고객에게는 보너스 리워드까지 제공한다. /이영석 기자